

여수지역에 간호학과 신설해 주오

지역병원들 간호사 부족사태 심각

74개 기관 정부에 건의문 제출키로

여수지역 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해 주오한다는 지역의료계의 요구가 높다.

여수지역 의료계와 여수시, 시의회, 교육계, 경제계 등 74개 기관은 여수 지역대학에 간호학과와 물리학과 신설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여수 병원들은 지역대학에 간호학과가 없어 간호 인력을 외지에서 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병원들은 타지에서 온 간호사들에게 기숙사와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과 속련된 간호인력이 출신지역 병원으로 돌아가는 이직사태로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수지역의 병·의원 수는 모두 130

여 개. 이 가운데 병상을 갖춘 의원은 22곳, 개인병원은 9곳이다.

여수시 인구대비 부족한 간호인력은 247명이며, 2014년이 되면 428명이 더 필요하다. 이는 간호사 1인당 인구수 544(전국평균 480명)명과 간호사 1인 병상수 4.6실(전국평균 2.5실)로 전남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여수지역 2곳에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전남병원은 간호선임 수술로 유명하다. 이곳의 간호인력은(조무사 포함) 2곳을 합쳐 200여명. 그런데도 간호사가 부족해 병동을 폐쇄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웅길 전남병원장은 “여수 지역 대학 간호학과에서 체계적으로 양성

된 간호사들이 관내 병원에 투입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간호 인력이 타지로 빠져나가 생기는 속련된 간호사 부족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 뜻을 함께하는 대다수 병원들과 함께 정부에 간호학과 신설을 강력히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제일의 인구도시이며 산업도시인 여수에는 간호학과가 없다. 이는 전남원 5개 시·군중 유일하다.

인근 순천의 경우 C대학 간호학과(3년 과정) 200명, S대학 간호학과(4년) 25명 등 225명이 매년 입학하고 있다.

광양도 K대학 간호학과(3년)에서 매년 120명을 뽑고 있으며, 광성군 C대학 간호학과(3년)에서도 해마다 120명씩을 뽑고 있다.

여수에 있는 고교 20곳(인문계 15·자연계 5) 역시 16년 전부터 지역대학에 간호학과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오고 있다.

간호학과 지망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역대학에 진학을 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내에 간호학과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광주 등 타지역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

여수 한영대학은 이 같은 학생들의 고충과 지역 의료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간호학과 신설에 대비한 신축부지 990m²(3000평)를 마련,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한영대는 간호학과 신설 인가가 나는 대로 이미 운영중인 치위생과와 작업치료과를 병합해 보건계열로 특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필요한 간호학과 인원을 이달 말 최종 배정한다. 복지부가 인원을 배정하면 교과부는 다음달 간호학과 신설을 인가해 주거나, 기존 간호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당학교 선정을 최종 결정한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봄풍경 1번지’ 세랑제

24일 전국에서 몰려온 사진 동호인들이 화순군 화순을 세랑제(堤)에서 봄풍경을 앵글에 담고 있다. 세랑제는 수면에 반영되는 만개한 산벚꽃과 신록이 어우러져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지역 관심이 전국 제폐 원동력”

광양 광영중 여자축구부 후원 손길

최근 전국 여자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양 광영중학교 (교장 김기창) 축구부에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광양 거양엔지니어링 우광일 대표(시진 원쪽에서 두 번째)는 지난 22일 광영중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30만원을 기탁했다.

우 대표는 “남자축구에 비해 지원의 손길이 작고 열악한 운동 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적을



한편 전남지역 유일의 여중 축구부인 광영중 여자축구부는 기은경 감독의 지도 아래 각종 전국 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U-17) 대회 우승 주역인 심단비와 백은미 선수도 광영중 출신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장흥 표고버섯

日 수출길 올라

60만 달러 첫 계약

장흥 표고버섯이 첫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남진 장흥농협은 일본 유통업체인 후지치쿠산과 연간 60만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2일 1차로 표고버섯 20만달러 어치를 선적해 일본으로 보내졌다.

후지치쿠산은 그동안 수차례 장흥지역 표고버섯 재배 현장을 방문해 재배, 건조과정을 면밀히 살펴 봤으며 최근 일본내 수입을 결정했다. 장흥 표고버섯은 현재 지역 600여㏊에서 재배하고 있고 전국 표고버섯 생산량의 42%를 점유할 정도로 재배가 활성화 돼 있다.

2006년에 자리적표시제 등록을 하면서 장흥 대표 특산품으로 자리잡았으며 2009년부터 2년여동안 청와대 설 명절 선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장흥군 기강해이 공직자 ‘일벌백계’

음주 1명 직위해제·수당 부정수령 1명 승진 취소

장흥군이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직위해제를 단행하는 등의 단호한 조치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단속에 나섰다.

이명희 장흥군수는 지난 13일 주·야간 열린 군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

지나친 과음상태에서 의회에 출석,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은 물론 의회를 경시한 행위를 한 L 보건소장에 대해 25일자로 직위해제 시켰다.

L 소장은 이날 군의회로부터 ‘의회에 출석, 보건 관련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하라’는 전자통지를 사전에 연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들과 만취상태로 음주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사망한지 10여년이 지난 모친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수당과 교통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의 수집자료에서 밝혀진 것과 입찰과정에서 빚어진 민원야

기 책임을 물어 J 사무관 승진내정자 (경리담당)를 25일부터 예정된 사무관 이수교육을 취소시켰다.

이명희 군수는 “공직자들이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리사욕에 젖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일벌백계’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오는 6월말에 공직원 일환으로 4·5급 간부 공무원에 대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흥 기동리 골프장 11월에 문 연다

JNJ골프리조트 회원 500명 모집

오는 11월 장흥군 장평면 기동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정규 골프장이 문을 연다.

JNJ골프리조트(주)(대표 조광한)는 지난 22일부터 JNJ골프리조트 1차 창립회원 정회원 500명 모집에 들어갔다.

JNJ골프리조트는 지난 2006년부터 D건설 측이 추진하다 그동안 중단된 골프장을 지난해 12월 말에 인수, 지난 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잔디 파종과 조경, 클럽하우스 건설, 공사 등 현재 6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며 활발히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

총 44만평 부지에 27홀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건설중인 JNJ골프리조트는 정·남·진 3개 코스로 운영되며, 모든 코스는 양잔디(캔터 퀄루그라스)를 쓰며, 사계절 푸른 잔디로 꾸며질 예정이다.

JNJ골프리조트 조광한 대표는 “온리 원(only one)을 지향해 회원과 내장객들에게 최고의 코스 퀄리티,



최선의 가격,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건강보험형, 연금보험형’ 골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NJ골프리조트 측은 1차 창립회원에게는 제주 라 헨느CC의 제휴회원 대우로 한 장의 회원권으로 2개의 골프장을 즐기게 할 계획이다. 문의(061-864-9090) /충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구례지역 저수지 둑높이기 본격화 374억 투입 내달 착공

구례지역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지사장 이강오)는 농업용수 확보와 재해예방, 하천 유지수원 증대를 위해 종사업체 374억원을 투입해 토지면 문수저수지와 간전면 효곡 저수지와 간전면 효곡 저수지를 144만㎡에서 222만㎡로 늘린다.

또 백운산 계곡의 간전면 효곡 저수지는 182억원의 사업비로 313m의 제방을 367m로 늘리고, 37.4m의 둑높이를 41.9m로 만들어 저수량을 기존 198만㎡에서 303만㎡로 늘린다.

문수저수지는 사업비 192억원을 들여 기존 320m의 제방길이를 343m로 늘리고, 46.1m의 둑높이를 51.6m로 높여 저수량을 144만㎡에서 222만㎡로 늘린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구례군 경지면의 3분의 1인 1000여 ha의 논에 대한 물부족 현상이 영구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오 구례지사장은 “재해를 예방하고 환경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대인동삼일부동산

세정공인증개사

전원주택지 ★급 매★

허가필, 6m도로 남향, 임야 6600m² (2000평)

m²당 20,000원
【위 치】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공장 및 창고부지 ★급 매★

대형차 진출입 가능 8450m² (2770평)

【위 치】

세정공인증개사
상무지구 세정이울렛 옆
375-0040
011-606-2231

금당 공인증개사

■ 김정가 이하

- 원룸부지, 생활주택 적합 백운동 로터리에서 무진중학교 가는 길 2층 주거지 256평 김정가 5억9천
- 교회건물, 구시청(이미트) 옆 대지 71 건평 2391평 건물, 노인요양시설포함 은행 1억 7300만원 매도 5억4천
- 이포트 부지 직업인 지역, 동림동 삼익이포트 뒤 주거지역 1845평 투자성 좋은 매도 9억2300만원
- 금남55가 대로변 대지4496 건평872 공시지가 53억2천
-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 회는 이강오 소재지 국도점 주거지역 596평 창고·공장·창고 대출 5천백 공시지가 매도 8700만원
- 금남5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 11억천
- 금남4가 4구 광주은행 4거리 대지 494 건물은 301평과 680평 2동 있는 공시지가 87억5천 매도 35억
- 북구 이포트단지 목욕탕, 골프연습장 대지440 건평 507 공시지가 9억7천 원형5억4천 전세8700만원 사우나, 헬스, 에어로빅은 직영함, 고현도가능 12억5천
- 광진역 앞 토지 대지108 건평83 김정가 1억8천 매도 6억7천
- 흥금동 4층 상가주택 대지 68 건평 145 매도 3억3천
- 주수동 회수원 땅 1118평 공시지가 10억8천 매도 15억5천
- 동광동 이포트 예정지역 계획도로 코너 대지 133평 1억5천
- 토대백화점 부근 대지 90평 4층 건물 공시가 5억 매도 4억5천
- 매도·교환
- 회수동 둑면 서성리 복장촌 250평 경관좋은 1억7500
- 남동읍 교원리 버스도로점 211평 주택·공장 1억6천8백
- 산수동 호남면 산업지 2종지 220평 사찰·빌딩지 2억7천
- 하남동 도천동 지면녹지 506평 공장·창고 3억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 서구 쌍촌동 3층상가 대지 55평 건평 100평 김정가 2억 6천만 최저가 1억8천만
- 광산구 비아동 3층상가 대지 73평 건평 131평 농지사설 김정가 3억5천만 최저가 2억 4천만

농가시설

- 나주시 금천면 과수원 토지 1,530평 김정가 1억8천 최저가 1억3천만

####